



수험소식 및 수험자료

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‘공정사회 위해 사시부활 ·수능정시확대 해야’



〈‘희망사다리를 다시 세우자’ 콘서트에서 인사말 하는 홍준표〉

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2월 11일(월) 서민들도 한국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을 부활하고 수능 정시모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

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관악구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‘희망사다리를 다시 세우자’ 토크 콘서트에서 “서민에게 돈 몇 푼 쥐여준다고 공정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.”며 이같이 밝혔다.

홍 대표는 지금의 로스쿨 제도나 대학 입학사정관제도가 서민의 자식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에 힘든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꼬집었다.

홍 대표는 특히 “한국 사회가 점점 가진 자들의 세상이 되고 부의 대물림을 넘어서서 신분의 대물림까지 가는 세상이 되어 간다.”며 “사법시험 제도가 없었다면 고(故) 노무현 前 대통령도, 홍준표도 없다.”고 강조했다.

그러면서 “제발 서민들에게 ‘거지 동냥 주듯이’ 국민 세금을 찢끔찢끔 내주는 것에 (서민들이)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.”고 목소리를 높였다.

홍 대표는 이어 서민의 첫 번째 바람은 ‘내 자식의 좀 더 나은 미래’ 라고 역설하면서 “서민의 가장 큰 꿈은 “나는 이렇게 없이 살고, 무시당하고, 힘들게 살았지만 내 자식 대에 만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.”는 것이다. “돈은 없어도 내 자식이 열심히 노력하면 한국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.”고 말했다.

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신분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. 그는 “현 정부에서 외무고시의 틈도 좁아지고 행정고시도 축소된다고 한다. 서민들이 계층이동을 할 수 없는 불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다.”며 ‘좌파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(모순)’라고 지적했다.

한편, 홍 대표는 이날 오후 tvN 시사토크쇼 ‘곽승준의 쿨까당’ 연말특집 행사 녹화에 들어간다. 본방송은 오는 12월 20일 오후 6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.

(연합뉴스 인용)